



에스겔 44장 17-31절 사독 제사장법의 목적과 기능

홍성민(장신대)

1. 들어가는 말

에스겔 44장 17-31절은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겔 44:15)을 향한 말씀으로, 에스겔이 기고궤(카보드/영광)이라는 야웨의 특별한 임재 아래 성전 현관에서(겔 44:4) 들은 말씀이다. 그 내용은 총 열세 가지로 제사장 베퇴(17절), 제사장 의복(18절), 옷 갈아입는 방(19절), 머리카락(20절), 금주(21절), 결혼(22절), 분별력(23절), 재판하는 업무(24a절), 절기와 안식일들에 관한 업무(24b절), 시체 접촉과 그에 대한 희생제사와 정결 의식(25-27절), 제사장의 기업(28절), 제사장의 몫(29-30절), 스스로 죽은 것과 찢긴 것을 먹지 말라(31절)는 규정이다.

에스겔 44장 17-31절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독’이 언급된 부분들(겔 40:44-46a; 42:13-14; 44:6-16; 45:4-5; 46:19-20, 24; 겔 40:46b; 43:19; 48:11)을 중심으로 ‘레위인 강등’이라는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함께 다뤄져왔다.¹ 벨하우젠(J. Wellhausen)은 에스겔 44장 6-16절에서 결정적인 ‘사독 차별주의’와 ‘예루살렘 성직자 우월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았다.² 페흐터(F. Fechter)는 포로 시대에 희생제사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제사장의 정체성(역할과 상태)은 희생제사가 아닌 계보(genealogy)를 통해서 알 수 있기에, 에스겔 44장 4-31절의 핵심은 10-16절이며, 그 주제는 제사장 계급의 차별화(상층과 하층)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에스겔 44장 17-31절이 바로 그러한 차별화(성직자와 다른 시민과의, 성과 속의, 성소 출입시 의복에서의, 정결과 부정의, 제사장과 비제사장의 차별화)의 특징들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³ 한편, 알렌(L. C. Allen)은 사독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간의 계급 구분이 점진적 문학적 발전 과정을 거쳐 그 절정에 이른 것을 비판적으로 정리한다. 첫째, 에스겔 40장 45-46a절은 단순히 두 유형(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의 제사장들을 언급한다. 둘째, 그런데 46장 19-20, 24절은 제사장들이 성전 구역 봉사자들과 구별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후자의 그룹이 확실하게 레위인들과 동일시되지는 않았다. 셋째, 이제 48장 8-26절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이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겔 45:4-5에도 반복됨). 마지막으로 44장 6-16절은 결정적인데 여호와의 섬기는 제사장들이 “사독 제사장”으로 불린다.⁴

1 L. C. Allen, 「에스겔 20-48」(정일오 옮김), (서울: 솔로몬, 2008), 43-44. 원제는 *Ezekiel 20-48* (Dallas: Word, 1990); P. D. Hanson, "Israelite Religion in the Early Postexilic Period", P. D. Miller, P. D. Hanson and S. D. McBride(eds.), *Ancient Israelite Religion: essays in honor of F. M. Cross* (Philadelphia: Fortress, 1987), 500-501.

2 J. Wellhausen,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Cleveland: The World Publishing Co, 1961), 123-124.

3 F. Fechter, "Priesthood in Exile according to the Book of Ezekiel", S. L. Cook and C. L. Patton(eds.), *Ezekiel's Hierarchical World Wrestling with a Tiered Reality*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Atlanta, 2004), 27-41.

4 L. C. Allen, *릿글*, 471-472. 이후 겔 40:46b; 43:19; 48:11로 적절히 통합 발전되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레위인 강등’ 주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띠기도 한다.⁵ 예를 들어, 듀크(R. K. Duke)는 에스겔 44장은 레위인 강등이나 레위인 심판이 없으며, 도리어 그들을 높이고 ‘회복’시키는 장면이라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에스겔 40-48장이 ‘회복’이라는 모티브의 주제적 우월함에 근거해 볼 때 그렇다고 말한다.⁶ 블록(D. I. Block)도 에스겔의 본래 의도는 레위인 강등이 아니라, 미래의 성전의 거룩함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 두과이드(I. M. Duguid)도 에스겔의 목적은 레위인을 향한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제사장 유산과 핵심 관심사를 최대한 강화시키려는 것이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본래 자기들의 자리로 되돌려 놓은 시도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⁸

이러한 연구들은 성전 직제 제도나 개념의 발전 과정을 충분히 살필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독 제사장법’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사독 제사장법이 다른 성서 본문들(특히 레 21-22장)과 유사하다고 인식한 채 넘겼고, 보다 분명하게 파악되는 사독 자손에게 제사장직을 제한하는 두드러진 현상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독 제사장들을 향해 주어지는 실질적인 법안을 자세히 살피는 일이 아닐까?

따라서 본 연구는 최종 본문으로서의 사독 제사장법을 본문 상호 간 해석 방

5 압바(R. Abba)는 벨하우젠 계열의 기본적인 논제를 반박하며, 에스겔의 법이 P의 것보다 더 조직적이라고 말한다. R. Abba, "Priests and Levites in Ezekiel", *Vetus Testamentum* 28 (1978), 1-9; M. D. Rehm, "Levites and Priests",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4, 297-310.; 슈바르츠(B. J. Schwartz)는 에스겔의 예언 자적 활동과 과제에 관해, 그는 결코 포로기의 어떤 제사장 직제를 재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B. J. Schwartz, "A Priest out of Place: Reconsidering Ezekiel's Role in the History of the Israelite Priesthood", *Ezekiel's Hierarchical World*, 61-71.

6 R. K. Duke, "Punishment or Restoration? Another Look at the Levites of Ezekiel 44.6-16",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0 (1988), 61-81.

7 D. I. Block, *The Book of Ezekiel 25-48* (Grand Rapids MI.: Eerdmans, 1998), 629, 636.

8 I. M. Duguid, *Ezekiel and the Leaders of Israel* (VTSup. 56; E. J. Brill: Leiden, 1994), 75-80; "Putting Priests in their Place: Ezekiel's Contribution to the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Priesthood", *Ezekiel's Hierarchical World*, 43-59.

법(intertextuality)을⁹ 사용하여 오경의 본문들과 견주어 보면서 사독 제사장법의 실질적인 내용을 살피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사독 제사장법의 목적과 기능을 찾는 것이다.

2. 에스겔 44장 17-31절의 위치와 문맥

에스겔은 긴 분량의 ‘성전법’을 듣는다(겔 43:10-46:18). 에스겔 43장 11절은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성전의 모양(מִזְבֵּחַ/ 추라), 배치(מִקְדָּשׁ/ 테쿠나), 성전을 나가고 들어오는 것, 율례들(מִצְוָה/ 훗코트), 법들(מִשְׁפָּט/ 토로트)이다. 이중 처음 두 개는 새 성전(겔 40-42장)에서 소개되며, 나머지 세 개가 ‘성전법’의 대상이다. 곧, 출입법과 성전의 각 방들과 영역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제사 드리는 율례들과 법들이다. 에스겔은 이러한 성전 법을 영광(כְּבוֹד/ 카보드)이라는 아웨의 특별한 임재 아래에서 세 번에 걸쳐 듣는다. 성전 현관에서 처음 듣고, 출입법과 관련하여 동문에서 듣고, 다시 성전 현관으로 돌아와 듣는다. 이 세 번의 이동과 세 번의 ‘성전법’(I, II, III)의 짜임새는 아래와 같다.

이동	말씀을 듣는 상황	성전법
43:5 성전 현관으로 이동	43:5 “아웨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다”	43:13-27 성전법 I
44:1 바깥뜰 동문으로 이동	44:2 “아웨가 왔다”	44:2-3 성전법 II
44:4 성전 현관으로 다시 이동	44:4 영광	44:5-46:18 성전법 III

성전법 I 은 제단과 제단을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관한 법이다(겔 43:13-27). 제단에 관한 법은 성전법의 핵심이자 회복될 성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성전법 II는 두 가지 사항을 다루는데(겔 44:2-3), 하

9 이 용어는 1960년대 후반 크리스티바(J. Kristeva)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스틸(J. Still)과 보르튼(M. Worton)은 본문상호텍스트의 형태들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다. J. Kristiva and L. S. Roudiez(eds.), *Desire in Language: A Semiotic Approach to Literature and Ar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P. Tull, “Intertextuality and the Hebrew Scriptures”, *Currents in Research: Biblical Studies* 8 (2000), 59-90. 국내 논문으로는 정석규, “신명기 17:14-20의 Intertextuality 를 통한 해석”, 『구약논단』 11집 (2001), 49-70; 이충열, 하계삼, “창세기 2장 5-6절의 번역/해석 및 기능에 관한 고찰”, 『구약논단』 61집 (2016), 76-104.

나는 바깥뜰 동문으로의 출입금지, 다른 하나는 우두머리(מִשְׁפָּט/ 나시)라는 인물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우두머리와 관련된 법의 소개는 자연스럽게 성전법 III와 연결된다. 성전법 III은 전의 율례들과 법들(겔 44:5a), 그리고 출입법(겔 44:5b)인데, 그 각각이 서로 번갈아 가며 소개된다. 먼저, 백성과 레위인과 사독 제사장의 출입법을 소개한다(겔 44:4-16). 이어 열세 가지 항목의 사독 제사장법을 그 출입법과 함께 다룬다(겔 44:17-31). 마지막으로 희생제사법(겔 45:9-46:18)을 그 출입법과 함께 주기가 긴 것에서 짧은 것 순으로¹⁰ 다룬다. 특히 출입법과 제사장법이 서로 긴밀하게 붙어 있는 이유는 사독 제사장법의 일차적인 목적이 성전을 오염으로부터 수호하고 지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¹¹

3. 사독 제사장법의 배경

에스겔 40-48장의 최종 편집자들이 사독 계열 제사장 무리라는 것에 일반적인 동의가 모아져 있다.¹² 이들은 다윗 왕가와 함께 예루살렘 국가 제의 책임자들이었다. 그러나 남유다 멸망으로 예루살렘 성전 제의가 붕괴됐고, 포로기의 심각한 위기는 그들에게 국가 멸망에 대한 책임론과 더불어 국가 재건 시 특별히 종교적 차원에서의 비전과 개혁을 요청했다. 제사장들로서 그들의 기본 개혁 개념은 ‘거룩함’이었고, 이들은 모든 영역에서 철저한 ‘구분’을 통해 ‘거룩함’을 보호할 때, 개혁의 완성과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¹³ 하지만 이들은 과거 실패의 원인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되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뼈를

10 첫째 달 첫날과 일곱째 날의 속죄제(18-20절), 유월절과 무교절(21-24절),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25절), 안식일(4-5절), 월삭(6-7절), 소제(11절), 매일의 의식(13-15절) 순으로 이어진다. 민수기가 주기가 짧은 것에서 긴 것으로 소개하는 것과 반대이다(민 28-29장).

11 S. S. Tuell, *The Law of the Temple in Ezekiel 40-48* (HSM 49; Atlanta: Scholars Press, 1992), 60-62.

12 R. Albertz, 「이스라엘 종교사 II」(강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120. 원제는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I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13 R. Albertz, 「포로시대의 이스라엘」(배희숙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475, 474-484. 원제는 *Die Exilszeit vor 6. Jahrhundert v. Chr.* (Stuttgart: Kohlhammer, 2001).

깎는 냉혹한 비판도 수용하고, 심지어 그들과 충돌되는 다른 이념들까지 수용함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다. 단순히 이상적인 ‘입장 발표나 ‘과거로의 회귀’ 차원으로는 포로라는 현실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고, 진정한 개혁의 완성을 나타내 보이고자 한다면 철저한 자기비판과 내적 변화의 모습까지도 담아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경 안의 제사장 관련 규정들과 견주어 볼 때 나타나는 에스겔서의 사독 제사장법이 담고 있는 더 높은 기준들과 엄격함, 적당한 타협이 아닌 철저하게 회개를 요청하는 관점과 태도적 변화, 또한 정치 권력적 동기에서 제공되는 개혁이 아닌 오히려 제사장들의 사명 의식에서 발동되는 자기 비판적인 특징들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

4. 사독 제사장법(겔 44:17-31)

1) 제사장 베옷(17절)

일반 백성의 옷에 관해, 레위기는 “두 재료를 혼합한 옷을 네 위에 입지 말 것”(레 19:19)을, 신명기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 כִּתְמֹר (체메르/양털)와 פִּשְׁטֵיט (페셰트/베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말한다(신 22:11). 제사장 의복에 관해, 출애굽기나 레위기는 בָּד (바드/세마포 옷)나 שֵׁשׁ (쉐쉬/가는 베옷)를 입도록 명한다(출 28:42; 39:27; 레 6:10<3>; 16:4 등).

한편, 에스겔은 사독 제사장들에게 “ כִּתְמֹר (체메르/양털 옷)를 입지 말고, פִּשְׁטֵיט (페셰트/베옷)를 입어야 한다”고 말한다(겔 44:17). 에스겔은 제사장 옷에 대한 용어로 בָּד (바드/세마포 옷)나 שֵׁשׁ (쉐쉬/가는 베옷)를 사용하지 않는다. 거꾸로 오경은 제사장 옷으로 단 한 번도 פִּשְׁטֵיט (페셰트/베옷)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직 בָּד (바드/세마포 옷)나 שֵׁשׁ (쉐쉬/가는 베옷)만을 사용한다. פִּשְׁטֵיט (페셰트/베옷)는 레위기에서 악성 피부병 환자들의 베옷에 생긴 색 점을 소개할 때 네 번 나타난다(레 13:47, 48, 52, 59). 거꾸로 에스겔은 בָּד (바드/세마포 옷)를 천사가 입고 나타난다(겔 9:2, 3, 11; 10:2, 6, 7). 또한 שֵׁשׁ (쉐쉬/가는 베)는 애굽 사람들의 배의 돛 재료로 사용되거나(겔 27:7), 비유 속에서 버려진 소녀가 베

로 된 띠를 입을 때 사용된다(겔 16:10).

에스겔의 용어 사용에서 이러한 특징은 해석학적 의미를 던져 준다. 에스겔은 출애굽기에 사용되고 있는 제사장 용어들을 전혀 그 문맥을 달리해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에스겔은 사독 제사장들에게 פִּשְׁטֵיט (페셰트/베옷)를 입으라고 명했고, 이것은 출애굽기에 의하면 악성 피부병 환자들 베옷에만 사용된 용어이다. 그러한 용어에 친숙한 제사장들이라면, 17-18절의 פִּשְׁטֵיט (페셰트/베옷) 사용은 충격적일 수 있다.

에스겔의 규정은 대상과 강조점 변경도 눈에 띈다. 의복 규정에 관해, 오경은 ‘일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다. 그 문맥은 ‘혼합’에 대한 금지이다.¹⁴ 제사장 세계관에서 혼합은 창조 질서에 대한 파괴를 뜻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거룩한 속성의 것’¹⁵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의복에 관한 오경에서의 혼합 금지 규정은 ‘백성들’에게 창조 질서 파괴 금지와 거룩함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교훈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에스겔은 ‘사독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이다. 제사장들의 옷이란 기본적으로 혼합된 직물의 옷으로, 그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옷은 최고 등급의 혼합물로 만든 옷이다. 당연히 제사장들에게 혼합된 의복 금지 규정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양털 옷은 혼합의 문맥이 아니라, 베옷과 하나의 대응을 이뤄 이어지는 18-19절과 함께 출입법 문맥 안에 놓인다. 양털 재질은 땀을 유발시키고, 그것은 결국 성전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¹⁶ 이렇듯 17절은 사독 제사장들에게 성전 출입시 의복규정을 통해 성전의 거룩함 확보를 위한 주의를 당부한다.

14 레 19:19은 두 짐승간의 교배, 두 종자를 섞어 재배하는 것, 두 재료로 직조하여 옷을 만드는 것을 금한다. 신 22:9-11은 두 종자를 섞어 뿌려 재배하지 말 것을, 소와 나귀로 함께 밭을 못 갈도록, 양털과 베실로 섞어 짜지 말 것을 말한다.

15 신 22:9b은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거룩해지지 않도록”(כִּתְמֹרֶיךָ)이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혼합으로 재배된 것은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일반인들이 식용할 수 없고 반드시 불태워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J. H. Tigay, *Deuteronom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202.

16 D. I. Block, *룻*, 640.

결국 17절에서 제사장 의복 용어에 대한 언어 뒤틀기는 마치 누가 진정 악성 피부병 환자들인지를 깨닫게 하며, 단지 의복이 거룩함의 차이나 신분 구별이 아니라 성전의 거룩함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2) 제사장 의복(18절)

일반 제사장의 의복은 속옷(תַּחֲנִית), 관(מִצְנַפֶּת 또는 מִנְבְּעוֹת [פֶּאֶרֶ]), 띠(אֲבֵט), 속바지(מִכְנִסִּים)이며, 여기에 대제사장은 에봇(אֵפֹד), 흉패(חֹשֶׁן), 겹옷(מִעֵיל), 패(זָרָה 또는 צִיָּי)가 추가된다. 18절은 그 중, 제사장 의복 세 가지를 소개한다. '세마포 관들(פֶּאֶרֶי פְּשֵׁתִים)'과 '세마포 속바지(מִכְנִסֵי פְּשֵׁתִים)'와 땀나는 것으로 목지 말라는 규정이 암시하는 '띠'이다. 제사장 의복에 관한 오경의 본문들(출 28:6-43; 출 29:5-9; 출 39:1-43; 레 8:7-9, 13; 레 16:4; 참조, Mish, Yoma 7.5)은 규칙적으로 거룩함의 등급에 따라 아론의 의복에서 그 아들들의 의복 순으로 언급된다. 출애굽기 29장 5-9절과 레위기 8장 7-9, 13절은 실질적으로 옷을 입는 논리적인 순서이다. 출애굽기의 것보다 레위기는 더 정확한 옷 입는 순서로 교정되어 있다. 레위기 16장 4절은 대속죄일에 입어야 하는 옷이기에 대제사장의 의복이 언급되지 않았다. 속죄제를 드린 후 번제를 드릴 때 대제사장은 다시 화려한 대제사장 옷으로 갈아입는다. 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관도 대제사장의 מִצְנַפֶּת(미쯔네페트/관)와 일반 제사장의 מִנְבְּעוֹת(민바오트/관)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다.

한편 에스겔은 첫째, 대제사장 의복에 관한 언급이 없다. 오히려 מַעֲיֵל(매일/겹옷)이 한 번 사용되었지만 두로의 멸망에 놀라는 바다의 우두머리들이 걸치는 겹옷에 사용된다(겔 26:16). 또한 מִצְנַפֶּת(미쯔네페트/관)도 한 번 사용되나, 충격적이게도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곧,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악한 통치자가 쓴다(겔 21:26<31>). 흉패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옷인데, 이 흉패에 사용되는 12개의 보석도 두로가 치장한 보석 장식품에 사용된다. 둘째, 용어 사용에서 17절

과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의 옷으로 כָּבֵד(바드/세마포 옷)나 שֵׁשׁ(쉐쉬/기는 베옷)를 사용하지 않고, תָּשֵׁב (페셰트/베옷)를 사용한다. 셋째, 출애굽기는 제사장들의 의복 규정을 통해 아론과 그 아들들의 כְּבוֹד(카보드/영광)과 תִּפְאֵרֶת(티프에레트/아름다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출 28:2, 40)¹⁷ 그러나 에스겔은 제사장들의 영광에 관심이 없다. 오직 야웨의 영광에만 집중한다. 그리하여 תִּפְאֵרֶת(티프에레트/아름다움)은 간음한 예루살렘에 빚댄 여인의 תִּפְאֵרֶת(티프에레트/아름다움)으로 비하된다(겔 16:12, 17, 39; 23:26, 42). 제사장들은 회복될 이스라엘 새 사회의 지도자들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외적 화려함이 아니다. 넷째, 성전의 거룩함 확보를 강화한다. 물두명은 제의 자체용 기물이라기보다는 제사장이 몸을 씻기 위한 기물이었다.¹⁸ 그리하여 제사장들은 봉사하기 전에 몸을 물로 씻고 일했다. 대속죄일 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준비 의식에서도(레 16:4), 최초의 제사장 위임식 때에도 몸을 씻는 의식이 나타난다(출 29:4; 레 8:6). 대속죄일과 최초의 위임식의 경우에 한해 '온 몸'을 씻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일상적인 제의 준비 과정에서는 '손과 발'만 씻는다(출 30:17-21).¹⁹ 18절은 각각 독립된 강조점을 나타내는 출애굽기 28장 42절(//레 6:10<3>)과 레위기 16장 4절을 섞어 에스겔 나름의 강조점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애굽기는 제단에 오를 때의 불경스러운 방지와 행여 있을 제사장의 치사(致死)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출 28:43). 레위기는 의복 규정이 그 옷들의 거룩함과 연결되어, 그것을 입기 위해서는 마땅히 몸을 씻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한편, 에스겔은 거룩한 영역인 성전을 땀으로 더럽힐 수 있다는 보다 분명한 당부와 연결되고 있다. 에스겔은 동물성 소재로 만든 옷이 땀을 유발하기에 양털 옷으로 만든 의복을 제의 활동에서는 금한다고 그 근본적인 이유를 분명히 한다.²⁰

17 P. P. Jenson, *Graded Holines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2), 125.

18 M. Haran, *Temples and Temple Service in Ancient Israel* (Winona Lake: Eisenbrauns, 1985), 159.

19 N. M. Sama, *Exodus*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187.

20 D. I. Block, *룻*, 640의 각주 135참조.

출 28:42(//레 6:10<3>)	레 16:4	겔 44:18
그들을 위해 세마포 속바지를 만 들어 벌거벗은 육체를 덮기를	세마포 속바지를 그의 육체 위로 있게 하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세마포 관을 머리에 쓰며 세마포 속바지를 있게 하고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u>이르게 하라</u>	이것들은 거룩한 옷들이라 물로 그 육체를 씻고 입을 것이 며	그들의 허리 위로, 탐나게 하는 것으로 묶지 말 것이며
강조점: 의복 규정이 벌거벗음 (출 28:42) 또는 재를 옮기는 규정 (레 6:10<3>)과 연결됨	강조점: 의복 규정이 그 옷들의 거룩함과 연결됨	강조점: 의복 규정이 성소 정결 유지와 연결됨

3) 옷 갈아입는 방(19절)

성막은 제사장들의 방에 관해 알 수 없다.²¹ 다만 옷 갈아입는 구역을 성막 곁에 천으로 가려 세웠을 수 있다(Mish, Middot 5:3; Yoma 3:3). 오경에는 옷 갈아입는 두 번의 예가 나타난다. 첫째는 재와 더러운 것을 진 바깥으로 옮길 때 이다(레 6:11<4>). 제사장은 베옷을 벗고, 다른 옷(평상복)을 입고 그 일을 수행했다. 두 번째 예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베옷을 벗고 목욕하고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번제 등 그 이후의 제사를 드리는 예이다(레 16:23-24). 에스겔 44장 19절을 레위기 본문들과 견주어 보면, 에스겔 본문은 레위기 6장 11<4>절과 16장 23-24a절이 적절히 섞인 형태이다.

레 6:11<4>	레 16:23-24a	겔 44:19
그 옷을 벗고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입은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장소에서 물로 몸을 씻고	바깥뜰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평상복)을 입고	그의 옷(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가	다른 옷(평상복)을 입고

21 오경 외의 본문으로 역대기는 성전에 있던 여러 방들을 소개한다. "성전 사면으로 방들이 있었고"(대상 28:12), "레위인들이 이 방들을 지켰으며"(대상 9:26), "레위인들 중 찬송하는 자들이 거주하는 방들도 있었으며"(대상 9:33), "거제물과 십일조와 성물(거룩한 것)을 보관하는 방들도 있었다"(대하 31:11-12). 그러나 제사장들이 옷 갈아입는 방에 대한 예는 없다.

에스겔 본문은 듣는 대상에 대한 변경은 없다. 두 성서 속 제사장 의복 관련 본문은 모두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이다. 그러나 관심사와 강조점이 변경됨에 따라 법의 내용이 달라졌다. 재를 옮기는 상황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옷을 갈아입는 특수한 제한적 상황도 아니다. 사독 제사장들이 일상에서 성전 출입시 환복하는 상황이며, 그에 맞게 법이 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현은 더 구체화되었다. 그리하여 출입하는 이유는 '수종들기 위한 것'으로 구체화되고, 야웨를 섬기는 자들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출애굽기 28장 43절과 에스겔 44장 19절을 비교하면 강조점의 변화도 눈에 띈다. 제사장 의복 규정에 관한 '결론 문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양자간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 두드러진다. 같은 결론 문장으로써, 에스겔은 성전을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제사장 의복을 벗고 백성을 치사에서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 반면 출애굽기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제사장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 이것은 출애굽기가 최초로 제사장을 세워야 했을 때,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생명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식해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 28:43	들어갈 때에나	회막에	입어야	죽지 아니하리니
	בְּבֹאֵם	אֶהְיֶה מוֹעֵד	וְהָיוּ עָלַי	וְלֹא יָמוּתוּ ... וְנָתַתִּי
겔 44:19	나갈 때에는	바깥뜰	벗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²²
	וּבְצֵאתָם	הַחֲצֵר הַחַיצוֹנָה	תִּפְשְׁטוּ	וְלֹא יִקְרְשׁוּ אֶתְהֶעָם

특히 '~을 거룩하게 하다'(אֶתְהֶעָם וְקָדַשׁ)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는 한결같이

22 일반적으로 거룩한 것(holiness)과 속된 것(profane)이 한 짝을 이루고, 정결한 것(clean)과 부정한 것(unclean)이 짝을 이룬다. 이 중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속성을 그것에 접촉하는 것에 전 달시킨다. 이를 전염이라고(contagious) 부른다. 나머지 '속된 것'과 '정결한 것'은 그런 힘의 속성이 없는 일종의 중립적 성격(neutral state)을 띤다. '거룩함의 전염'(contagious holiness)에 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다. 하란(M. Haran)은 거룩함도 전염된다고 본다(M. Haran, *Temples and Temple Service in Ancient Israel*, 176). 반면 레빈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접촉하기 전'에 반드시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어떤 물체가 단순한 접촉에 의해서 거룩해질 수는 없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B. A. Levine, *Leviticus*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1989], 37-38).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할 때에만 사용되었다(출 29:1, 33). 그러나 에스겔은 ‘백성을’ 염려할 때 줄곧 사용한다(겔 44:19; 46:20[지성물이 백성을]). 또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כֹּהֵן... טָהוֹרִים)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제사장이나 제사장 옷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았다. 오직 제단(출 29:37)이나 성막의 기구들(출 30:29),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소제물과 속죄제물(레 6:18<11>, 27<20>)과 접촉할 때 그것과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뿐이다. 이는 마치 제사장이나 제사장 옷과는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인상을 준다.²³ 아주 드문 경우 민수기는 대제사장의 옷만이 거룩함의 전염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한다(민 20:26).²⁴ 그러나 에스겔은 이 표현을 처음으로 사독 제사장의 옷과 연결시킨다. 이것은 그들의 위상을 마치 제단의 거룩함의 수준이나 대제사장 의복의 거룩함의 수준처럼 높은 현상이며, 동시에 그들에게 큰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²⁵

4) 머리카락(20절)

오경은 모두 머리카락을 ‘장례 애도’ 문맥에서 설명한다. 장례 애도와 관련된 조항들은 성소에서 나가는 것, 머리 풀기(טָהַר), 옷 찢기(טָרַף), 대머리(הִתְחַלֵּץ)로 밀기, 머리나 수염 자르기, 살 베기(טָרַח)가 있다(레 19:27-28; 21:5, 10, 12; 신 14:1). 대제사장은 이 모든 사항이 금지이며, 반대로 일반인의 경우는 보다 유연하다. 일반제사장은 그 중간 범위에 해당된다.

첫째, ‘일반인’의 경우 이방인들은 장례 시에 자기의 살을 베거나 눈썹 사이를 밀거나 수염 끝을 손상시키거나 머리 가를 둥글게 밀었다.²⁶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회중에게 장례 시에 “머리 가를 둥글게 밀거나(טָרַח),

수염 끝을 잘라버리지(נִטָּשׁ) 말라”고 말씀한다(레 19:27).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가나안 땅에서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를 말하면서, 장례 시에 “눈썹 사이 이마 위를 כֹּרֶחַ(코르하/대머리)로 만들지 말라”고 당부한다(신 14:1). 이처럼 오경은 일반인들에게 장례 시에 이방 풍속을 따를 것에 대한 염려에서 머리카락 규정을 당부하고 있다. 둘째,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반 제사장들에게 가족(부모, 자녀, 형제, 결혼하지 않은 자매)의 장례 시에는 스스로를 더럽힐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장례에는 머리를 כֹּרֶחַ(코르하/대머리)로 만들거나 수염 양쪽을 면도하지(נָחַץ) 말라고 말씀한다(레 21:5).²⁷ 대제사장의 경우, 장례 애도 금지는 더 엄격하여 그는 부모의 장례에도 머리를 풀 수(טָהַר) 없고 성소에서 나올 수조차 없다고 말씀한다(레 21:10-12). 오경의 본문들은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는 ‘장례 시’에 여호와께 화제와 떡을 가져와야 하는 직무로 인해, 성소가 더럽혀질 것에 대한 염려에서 머리카락 규정을 당부한다(레 21:6, 12).

한편, 에스겔은 머리카락 규정에 대한 별도의 문맥이 없다. 그는 장례 애도 문맥을 없애고 제3의 문맥인 사독 제사장법안의 ‘출입법’과 연결시킨다.²⁸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사독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성소로 출입할 때에, “머리카락을 면도하거나(נָחַץ) 풀어(טָהַר) 두지 말며, 다만 머리를 다듬기만 하라(טָהַר)”고 명한다(겔 44:20). 이는 평상시의 흠 없는 단정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²⁹ 제사 심승도 흠 없는 것을 드리는데, 하물며 이들은 얼마나 더 단정한 모습으로 성소를 출입하며 봉사해야 하겠는가.

23 D. I. Block, *룻*, 641.

24 P. P. Jenson, *룻*, 127.

25 J. Milgrom, *Ezekiel's hope: a commentary on Ezekiel 38-48* (Eugene, Or.: Cascade Books, c2012), 204.

26 사 15:2(모압); 렘 47:5(블레셋), 48:37(모압); 겔 27:31(두로에 대한 얘기). 또한 이스라엘 안에서도 행해졌다. 사 22:12(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시함); 렘 16:6; 41:5; 암 8:10; 미 1:16

27 예외의 경우도 있다.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을 받아 죽자, 모세는 아론과 그 나머지 아들들(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지(טָהַר) 말라”고 말한다(레 10:6). 사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형제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풀 수 있었다. 그러나 금지당한 것은 대제사장 수준의 명령이 적용된 것이며, 또한 아무리 가족 장례일지라도 그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부정에 의한 심판의 죽음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 P. P. Jenson, *룻*, 122-123.

28 D. I. Block, *룻*, 641.

29 P. P. Jenson, *룻*, 84.

5) 결혼(22절)

레위기는 일반 제사장이 **זָנָי** (조나/창녀), **הַלְלָלָה** (할랄라/더러운 여자), **הַפְּגָרָה** (게루샤/이혼 당한 여자, 쫓겨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한다(레 21:7).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하나가 더 추가되어 **הַגְּבֻרָה** (알마나/과부)와의 결혼까지를 금한다. 이어 대제사장의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소개된다. 오직 제사장 **אֵם** (암/가계, 친족)의 **הַתּוֹרָה** (베툴라/처녀)와 결혼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씨가 더러워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레 21:13-15). 레위기 21장은 제사장들의 정결함 유지의 중요성을 당부한다. 이때 무엇보다 회중의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하여 두 개의 규정을 첨부한다. 레위기 21장 8절은 회중들에게 전달된 권면으로 회중들이 제사장들의 성화의 삶을 예의 주시하도록 요청한다. 24절도 회중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회중은 제사장들이 결혼 규정을 따라 잘 사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실제로 제사장들의 결혼은 회중의 협력이 절대적일 수 있다.

한편, 에스겔은 레위기의 대제사장을 위한 결혼 규정을(레 21:13-15) 취하여 그것을 모든 사독 제사장들에게 적용한다.³⁰ 즉, 레위기의 기준보다 상향 조절된 셈이다. 그리하여 일반인의 **הַגְּבֻרָה** (알마나/과부)나 **הַפְּגָרָה** (게루샤/이혼 당한 여자, 쫓겨난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레위기에서 일반 제사장들이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을 감안하여, 에스겔서가 이를 제공한다. 사독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집’ 씨의 처녀와 결혼할 수 있다. 특이한 것 하나는 레위기는 대제사장의 경우 모든 과부와 결혼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에스겔은 제사장 과부와 결혼을 ‘허용’한다. 이는 비록 과부일지라도 제사장 아내로 과부가 된 여자는 그녀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본다는 뜻이다. 역으로 사독 제사장들의 거룩성을 높인다는 의미일 수 있다. 요세푸스는 제사장들에 대해 백성들과 비교해 두 배의 순결성이 요구

되는 자들이라고 말했는데(Josephus, *Ant.* 3.12.2), 레위기가 백성의 협력으로 결혼 제도가 유지되고 제사장들의 거룩성이 보존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에스겔은 백성의 협력이 고려되지 않으며, 사독 제사장들의 거룩성을 한층 더 높인다.

6) 재판하는 업무(24전반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유능한(**אִישׁ**)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각 지파에서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큰(**גָּדוֹל**) 일은 모세가, 작은(**קָטָן**) 일은 이들이 재판하도록 권했다(출 18:21, 22, 26). 이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은 재판관이면서 동시에 군대지휘관이었다.³¹ 모세는 특히 지적 능력(**מִדְבָּר, יִב, אִישׁ**)을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여겼다(신 1:13, 15).³² 그리고 그때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모든 업무를 다 알려 주었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명했음을 회고한다. 바로 공정한 판결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 수여자이시며, 재판관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곧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신 1:16-18). 따라서 재판관은 사람을 보고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한다.

이어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재판에 관한 여러 말을 계속한다. 광야 시대의 재판 조직이 약속의 땅에서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이 말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만드는 초기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행해진 ‘주요 공직자들에 관한 말씀들’ 가운데 놓여 있다. 주요 공직자들 네 부류는 재판관들(신 16:18-20; 17:8-13; 19:15-19), 왕들(신 17:14-20), 제사장들(신 18:1-8), 예언자들(신 18:9-22)이다. 핵심은 각 공직들의 업무 소개라기보다는 각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과 각 권력이 어떻게 제한을 받고 통제되어야 하는가이다.³³

30 M. A. Lyons, *From Law to Prophecy: Ezekiel's Use of the Holiness Code* (New York: T&T Clark, 2009), 132; J. Milgrom, *Ezekiel's hope: a commentary on Ezekiel 38-48*, 204.

31 J. H. Tigay, *윗글*, 11.

32 *윗글*, 160.

33 *윗글*, 159.

먼저, 신명기 16장 18-20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한 말이다. 백성에게 재판이 무엇이나를 소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재판관들의 권력이 제한 받기 위한 '백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한다.³⁴ 모세는 재판의 공정한 시행에 온 백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친다. 따라서 모세는 재판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보다는 판결에 중점을 두고, 백성이 재판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본문은 재판이 편애와 뇌물로 굽어지지 않도록 백성들이 책임 있는 감독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다.³⁵

두 번째 말씀은 신명기 17장 8-13절이다. 모세가 '지방 재판관들'에게 한 말이다. 지방 재판은 '성문'에서 했다. 반면 고등 재판(최고 법정)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오라는 것은 최고 법정으로 가져오라는 말이다.³⁶ 다음의 세 가지 경우인데 '피와 피', '다툼과 다툼', '구타와 구타'이다. '피와 피'란 살인사건을 말하며, '다툼과 다툼'은 절도와 손해배상 같은 문제들을(출 22:7-15<6-14>), '구타와 구타'란 신체적인 상해를 말한다(출 21:22-26; 레 24:19-20). 그리고 제사장들도 재판관으로 일했던 것을 볼 수 있다(신 17:9; 19:17; 21:5). 여호사밧 법정은 일종의 최고 법정이었다(대하 19:8-11), 평신도 재판관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로 구성되었다. 최고 법정은 세속적인 일들은 물론 종교적인 일들(여호와께 속한 일)까지 재판했다.³⁷ 요약하면 신명기 17장 8-13절은 모세가 지방 재판관들에게 그들이 최고 법정의 판결을 잘 순종하여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다.

세 번째 본문인 신명기 19장 15-21절은 모세가 '온 백성'에게 한 말이다. 두 가지 원칙이 제시된다. 하나는 재판에 둘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34 윗글, 159.

35 출 23:3, 6, 8 참조. 뇌물의 위험성은 신 10:17; 27:25; 삼상 8:3; 사 1:23; 5:23; 33:15; 겔 22:12; 암 5:12; 미 7:3을 참조.

36 J. H. Tigay, 윗글, 163.

37 윗글, 164.

(신 17:6). '둘 혹은 그 이상'이라는 표현은 최소한의 증인이 두 사람이며, 최대는 제한이 없다는 말이다.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실이 분명해진다는 뜻이다.³⁸ 다른 하나는 거짓 증인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다. 조사는 자세히 이루어져야 했다(신 13:14<15>). 예를 들어, 증인은 시간과 장소에 관한 일곱 개의 질문에 답해야 했고, 살인 사건의 경우 무기라든지 살인자와 피살자의 옷차림새 등에 관한 사항에 모두 일치된 답변을 해야 했다(Mish, Makkoth 1:10). 본문은 신명기 16장 18-20절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있어서 백성의 중요한 책임감을 당부하는 말씀이다.

요약하면 오경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주요 공직자들에 관한 법을 소개하면서 재판관들에게 재판의 업무를 소개하기보다는, 온 백성과 지방 재판관들에게 그들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당부하는 말씀이다.

한편, 에스겔서와 견줄만한 가장 유사한 본문은 신명기 21장 1-9절이다. 이는 무죄한 자의 피(פִּי וְדָם) 흘린 죄를 제거하는 '제의적 절차'에 관한 것을 다룬다(참조. 신 19:10, 13). 따라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주어진다. 이때 제사장들은 피살된 시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8절) 제의 절차를 담당하며 재판과정에 참여한다. 5절은 모든 소송(מִשְׁפָּט)과 구타(מַדְּוָה) 사건이 "제사장들의 입"(פִּי הַכֹּהֵן)을 통해 해결됨을 강조한다. 신명기 17장 10-11절도 세 번에 걸쳐 제사장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들이 네게 가르친" תּוֹרָה(토라/율법)를 따라, "그들이 네게 말해준" 판결에 따라, "그들이 네게 선고한" 사건에 따라 판결할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에스겔은 제사장들의 자의적인 해석의 권한에 대해, 이를 다시 תּוֹרָה(토라/율법)의 권한에 복종시키는 조치이다. 사독 제사장들은 소송(מִשְׁפָּט) 사건에 관해 "그들의 입"이 아닌 "내 법규대로"(בְּפִי הַמִּשְׁפָּט) 재판해야 한다(겔 44:24a). 또한 오경은 제사장들도 재판관임을 규정하기는 하나, 제사장들에게

38 윗글, 163. 물론 다수의 위험성도 당부한다(출 23:1-2). 산헤드린은 재판시 무죄의 경우 하나의 견해도도 판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죄판결의 경우는 둘 이상의 다수 당의 동의로 판결을 해야 했다(Mish, Sanh. 4:1; N. M. Sama, 윗글, 142).

직접적으로 재판에 관한 어떤 규정을 명시하는 본문은 없다.³⁹ 이에 반해 에스겔서는 직접적으로 사독 제사장들에게 “송사하는 일”(כִּפּוּר)을 “내 규례대로”해야 할 것을 직접 명시한다. 이들에게 종교적 업무 외에도 재판 업무까지 당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권위를 높인다는 뜻이다.

7) 시체 접촉에 대한 희생제사와 정결 의식(25-27절)

부정함의 강도에 따라 정결 의식의 등급이 적용된다. 강한 부정함에는 보다 강한 정결 의식이 요구된다. 약한 더러움들은 물을 통한 정결 의식으로 단지 옷을 빨거나 몸을 씻으면 된다. 그러나 강한 더러움들은 물뿐만 아니라 피를 통한 희생제사가 필요하다. 피의 희생제사는 비용이 크게 소요되며, 약한 부정함에 적용되는 물을 통한 정결 의식은 보다 값싸며 대중적이고 따라서 일반 백성들이 시행하기가 한결 쉽다. 기간의 경과(time lapse)의 강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약한 더러움은 하루, 강한 더러움은 적어도 7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⁴⁰ 강한 더러움은 진영으로의 출입이 금지되며, 이것은 진영이 더러워지는 위험의 최소화와 관련되어 있다. 약한 더러움은 성소로의 출입이 금지되며, 성소가 더러워지는 위험과 성물에 대한 범죄의 최소화와 관련되어 있다.

에스겔 44장 26-27절은 시체로 인한 더러움 곧, 가장 강도가 강한 더러움 하나만을 다룬다. 그 회복 과정은 민수기 19장에 소개되어 있다. 정결하게 하는 물 의식 이후, 성소에서의 희생제사에 대한 별도의 요구는 없다. 즉, 붉은 암송아지 재는 희생제사적 속죄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 이상 성소에 가서 제사 드려야 하는 희생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⁴¹ 한 사람의 죽음과 장

례는 공동체 안에서 피할 수 없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며, 이는 상당한 수의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부정하게 만든다. 반면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피의 희생제사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요구를 필요로 하는데, 민수기 19장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한다. 즉, 여기에는 경제적 개념이 충분히 적용되고 있다. 그로 인해 희생제사에는 값비싼 짐승(תִּבְרָה, 파라/붉은 암송아지)이 사용되는 반면, 시행 절차는 매우 손쉽게 배려된다. 특히 재의 양은 경제적 요소와 직결된다. 그리하여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실로 재의 양을 충분히 증가시킨다. 이렇게 재료와 절차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⁴² 무엇보다 제3일에 시행하는 물 뿌림으로도 그는 여전히 부정한 상태에 놓여 제7일까지 이른다(민 19:19).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성소에 접근할 수도 없다. 곧, 시체로 인한 부정함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 것이지 보여 준다. 한편 이는 붉은 암송아지 속죄제가 진영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도 잘 보여 준다.

한편, 에스겔 44장 26절의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는 위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민 19:1-10).⁴³ 그런데 사독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과정을 추가로 요구한다. 첫째, 7일의 기간 증가이다. 에스겔은 민수기 19장의 7일 기간 후, 7일의 기간을 더 요구한다. 이것은 사독 제사장들을 위한 말씀으로 평민보다 더 높은 수준을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다.⁴⁴ 일반적으로 7일은 진영 안으로 들어와 공동체와 재연합을 이루는 상징적 기간이며, 동시에 ‘야웨 앞까지’ 이르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보인다. 이 기간이 완료되어야 사독 제사장들은 성막에

이를 분명히 속죄제(כִּפּוּר)라고 말한다. 따라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 이후, 성소에서의 희생제사에 대한 별도의 요구가 없다. 악성 피부병의 정결 절차와 달리, 거기서의 새의 피 제의는 희생제사가 아니었다(레 14:4-7). 그러나 붉은 암송아지 재는 희생제사적 속죄를 가져오는 희생제사로, 더 이상 성소에 들어가 제사 드려야 하는 절차와 같은 희생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39 재판과 관련된 출 21:6,22; 22:8-9<7-8>; 레 19:15, 35절도 모두 온 백성을 향한 말씀들이다.

40 젠슨(P. P. Jenson)의 부정함의 등급 도표(a. Minor defilements와 b. Major defilements)를 통한 더러움들의 등급, 경과 시간의 등급, 필요한 정결 의식의 등급을 참조, P. P. Jenson, *윗글*, 225-226.

41 윗글, 168. 이 제의가 희생제사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특이하게도 진영 밖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피도 직접적으로 제단이나 성소 위에 뿌려지지 않으며, 단지 회막을 향해 뿌려진다. 그로 인해 베핑은 희생제사가 아니라고 말한다(S. Wefing, “Beobachtungen zum Ritual mit der Roten Kuh (Num. 19, 1-10a), *ZAW* 93 [1981], 349, 354). 그러나 밀그롬은 분명한 희생제사라고 본다(J. Milgrom, *Studies in Cultic Theology and Terminology* [Leiden: Brill, 1983], 86-90). 한편 젠슨도 이를 희생제사로 간주한다. 민 19:9은

42 P. P. Jenson, *윗글*, 166-168.

43 침멜리(W. Zimmerli)는 민 19장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한다. W. Zimmerli, *Ezekiel 2*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1979-83), 461. 그러나 블록, 알렌, 블렌킨쇼프 등은 에스겔이 민 19장의 평민 규례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본다. D. I. Block, *윗글*, 643; L. C. Allen, *윗글*, 486; J. Blenkinsopp, 「에스겔」 (박문재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304, 원제는 *Ezekiel* (Interp: Westminster John Knox, 1990).

44 J. Milgrom, *Ezekiel's hope: a commentary on Ezekiel 38-48*, 204.

서 수종들 수 있다. 특히 평민과 건준다면, 제사장은 더 거룩한 장소인 성소까지 들어가야 하기에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27절은 “성소”(בְּקֹדֶשׁ)를 두 번이나 반복해 사용하고 있다. 둘째, 속죄제에 관한 것이다(27절). 제사장들은 시체 접촉 후 직무 수행 재개를 위해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있었다. 27절은 속죄제 제물을 언급하지 않지만, 나실인의 것과 견주어 본다면, 새를 드려야 할 것이다.⁴⁵ 물론 그때의 피를 다루는 절차는 성소 안 쪽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의식이라기보다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쏟는 의식일 것이다(레 5:7-10). 이 두 과정은 사독 제사장법에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민수기 19장이나 레위기 21-22장 그 어디에도 시체 접촉 후 정결하게 되는 과정까지는 소개하나, 제사장들의 성소 직무 수행 시작과 관련된 법에 대한 설명은 없기 때문이다. 일반 백성들을 향한 조항(민 19장)이거나 제사장들을 향한 법이라도 성물을 먹는 것과 그들의 생명 보호에 관심이 있었다(레 21-22장). 에스겔 44장 26-27절은 사독 제사장들의 직무 수행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으로 이에 대한 보충일 수 있다. 특히 레위기 22장 4-6절이 더러움을 성물 먹기와 연결시켜 제사장들의 특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에스겔은 그들의 특권보다, 성소에서의 직무 수행이라는 그들의 책임과 의무에 더 관심을 둔다.

8) 제사장의 뭇(29-30절)

희생제사의 뭇과 관련해, 뭇은 전부를 다 불태울 수도, 제사장에게 줄 수도, 제사 드린 사람이 돌려받을 수도, 진영 밖에 버릴 수도 있다. 에스겔 44장 29-30절은 백성에게 하신 말씀으로 제사장의 뭇⁴⁶ 일곱 가지를 소개한다.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בְּרִיאָה, 헤렘/바쳐진 것), 처음

45 윗글, 204.

46 랍비들은 제사장들의 뭇을 총 24개로 구분했다. 그 중 12개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뭇이며, 나머지 12개는 성전 밖에서 의식으로 제사장에게 돌리는 뭇이다. J. Milgrom, *Numbers*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1990), 148-149.

익은 열매(בְּכֹרֶת, 빅쿠립), 거제 제물(הַזֶּבֶחַ, 트루마), 첫 밀가루(חֵטְאֵי, 아리싸)이다. 이는 민수기 18장 8-19절과 견주어 볼 수 있다. 민수기의 본문은 아론에게 이른 말씀이다. 첫째, 지성물에 해당되는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이 제사장의 뭇에 해당된다(민 8:9). 소제는 제사장이 거친 가루 한 줌을 제단에 불사르고 나면(레 2:2,9,16; 5:12; 6:15<8>) 그 나머지가 제사장의 뭇이다(레 2:3,10; 5:13; 6:16<9>; 7:9-10). 또한 매 안식일마다 진설한 진설병도 지성물로서 제사장의 뭇이다(레 24:5-9).⁴⁷ 둘째, 속죄제는 우두머리와 평민의 속죄제가 제사장의 뭇이 있었고, 따라서 숫염소, 암염소, 어린 암양의 고기가 이에 해당된다(레 4:22-35; 6:26<19>, 29<22>).⁴⁸ 셋째, 속건제의 숫양의 기름과 내장과 다리, 피를 제외한 모든 고기가 제사장 뭇에 해당된다(레 5:15,18, 6:6<5:25>). 넷째,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은 오직 제사용으로 구별해 놓은 제물을 뜻하는데, 이것도 제사장의 뭇이다(민 18:14). 다섯째, 처음 익은 열매와 과일의 첫 것, 즉 초실이다(출 23:16, 19; 34:22, 26; 레 2:14; 23:17, 20; 민 13:20; 18:13; 28:26). 제사장은 보리 한 단 밑에 두 손을 넣고 앞과 뒤로 흔들고, 위로 올렸다 내려놓으며 요제로 드린다(레 23:11; Mish. Menahoth 5:1). 그 단은 제사를 집도한 제사장의 뭇으로 돌렸다. 이와 더불어 칠칠절에는 밀을 거두고 이를 가루로 만들어 2/10에바에 기름과 누룩을 넣어 유교병 두 덩이를 만들어 요제로 드린다(레 23:17, 20). 그 두 덩이 유교병도 제사를 집도한 제사장의 뭇으로 돌렸다. 여섯째, 거제 제물 가운데 제사장의 뭇이 있다(민 18:11). 대표적으로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부위를 거제로 드린 후 당시 제사를 집도한 제사장의 뭇으로 주었다(레 7:32-33).⁴⁹ 일곱째, 첫 밀가루이다. 첫 밀가루는 첫 수

47 다만 대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소제만큼은(아침에 1/20 에바, 저녁에 1/20 에바) 모두 여호와와의 뭇이며, 제단에서 다 불살랐기에 제사장의 뭇이 없다(레 6:23<16>).

48 대제사장과 온 회중과 대속죄일의 속죄제물은 모든 고기까지 불살랐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돌아갈 뭇이 없다(레 6:30<23>).

49 거제의 예로는 화목제 감사제 때 드린 유교병(레 7:14), 성막 건설을 위해 백성들이 가져온 건축 재료들(출 25:2-3; 35:5, 21, 24; 36:3, 6), 제사장 위임식 때 숫양의 넓적다리(출 29:27, 28), 백성이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성전세(출 30:13-15), 나실인이 기한을 마치고 드린 서원제 때의 넓적다리(민 6:20), 처음 익은 곡식(חֵטְאֵי, 아리싸)으로 만든 빵(민 15:19-21), 백성이 레위인에게 바친 십일조와 레위인이 아론에게 바친 십일조(민 18:24-29), 성전에

확한 곡식을 타작해서 거칠게 빵아 그 가루로 빵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던 덩어리를 말하는데(민 15:20, 21), 백성들은 타작하는 과정에서 첫 밀가루를 먼저 하나님께 거제로 들어 올린 뒤 제사장에게 가져왔다(느 10:37<38>).

에스겔의 뭇에 관한 언급을 민수기 18장 8-19절과 견주어 보면, 첫째, 민수기는 아론의 생계 수단을 확고히 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인다. 왜냐하면 위험한 봉사 일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기 때문이다. 레위인에게도 이는 동일하다(민 18:21, 31). 그러나 에스겔은 제사장의 뭇을 설명하면서 제사장들보다는 백성들의 복에 더 관심을 둔다. 과거 타락한 제사장들이 왕권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소득 증대에 몰두했던 것에 실질적인 교정을 가한다. 동시에 사독 제사장들의 백성을 축복해야 할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있다. 둘째, 에스겔은 화목제물(민 18:18)과 요제(민 18:11)의 제사장 뭇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화목제물(소, 양, 염소의 각각 암컷과 수컷)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헌제자와 온 가족이 함께 먹었기에 제사장들만의 뭇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화목제의 제사장 뭇인 거제물 두 개, 즉 유교병(레 7:14)과 오른쪽 뒷다리(레 7:32-33)는 이미 거제물에서 언급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요제(תֹּזֶה, 트누파)는 언제나 '여호와 앞에서' 드리던 제사로,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직접 드릴 수 있던 거제와는 달랐다. 요제는 나실인의 서원제(민 6:20), 악성 피부병 환자의 속건제(레 14:12, 24), 간음의 혐의를 받던 여인의 의심의 소제(민 5:25) 등과 같이, 주로 특별한 사건들에 해당되던 제사 방법이다. 또한 초실절과 칠칠절에 드리던 요제는 처음 익은 열매와 중복되는 것이기도 하다. 화목제 요제인 가슴 부위도 제사장의 뭇이다(레 7:30-31). 따라서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는 현재 에스겔 44장 28-30절 문맥에서 요제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 결국 에스겔은 오직 제사장들 뭇만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다. 사독 제사장들은 그 이상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되며, 그들은 재산과 뭇을 초월해야 할 자들로 야웨를 대신해 백성을 축복하는 의무와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바치는 전쟁 노획물(민 31:29, 41, 52)이 있다.

5. 나가는 말

사독 제사장법(겔 44:17-31절)을 오경의 것들과 견주어 볼 때 나타나는 현상들과 관련해서 하란(M. Haran)은 에스겔의 것을 영성한 모방이나, 소위 P의 이유적으로 평가한다.⁵⁰ 그러나 리온스(M. A. Lyons)는 이것이 열등한 법이거나 단순한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반박한다.⁵¹ 특히 거룩함과 관련해서, 제의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려는 목적이 보인다고 평가한다.⁵²

에스겔 44장 17-31절을 본문간 상호 비교 연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면, 이것은 사독 제사장들의 국가 멸망의 실패와 과오에 대한 실질적인 비판과 교정을 가하고 있다. 이것은 성전을 오염으로부터 수호하고 지키는 데에 관하여, 희생제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단정하고 거룩하고 수준 높은 태도와 삶을 요구하는데 즉, 일상의 삶과 성전 직무에서의 삶의 일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특권보다는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다. 사회 지도력과 관련된 업무에서도 백성들의 본이 될 것을 요청한다.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이렇듯 이 법은 사독 제사장들에게 과거 실패와 멸망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내적 변화를 요청하고, 새 사회를 전망할 때 부과되는 그들의 위상과 책임감을 강도 높게 당부한다. 포로기의 심각한 위기는 개혁을 향한 몸부림의 시기였고, 특히 사독 제사장들은 환골탈태(換骨奪胎)의 마음으로 이를 자기비판과 내적 변화를 통한 실질적인 갱신의 기회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50 M. Haran, "The law-Code of Ezekiel 40-48 and its relation to the Priestly school", *Hebrew Union College Annual* 50 (1979), 61-67.

51 M. A. Lyons, *윗글*, 132. 그는 H의 관용어법들을 창조적으로 재사용하여 그만의 법 개혁안을 탄생시킨 선례라고 평가한다(134).

52 *윗글*, 133.

6. 참고문헌

- 이충열, 하계상, “창세기 2장 5-6절의 번역/해석 및 기능에 관한 고찰”, 『구약논단』 61집 (2016), 76-104.
- 정석규, “신명기 17:14-20의 Intertextuality 를 통한 해석”, 『구약논단』 11집 (2001), 49-70.
- Abba, R., “Priests and Levites in Ezekiel”, *Vetus Testamentum* 28 (1978), 1-9.
- Albertz, R., 『이스라엘 종교사 II』 (강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원제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I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 _____, 『포로시대의 이스라엘』 (배희숙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원제 *Die Exilszeit vor 6. Jahrhundert v. Chr.* (Stuttgart: Kohlhammer, 2001).
- Allen, L. C., 『에스겔 20-48』 (정일오 옮김), (서울: 솔로몬, 2008). 원제 *Ezekiel 20-48* (Dallas: Word, 1990).
- Blenkinsopp, J., 『에스겔』 (박문재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원제 *Ezekiel* (Interp: Westminster John Knox, 1990).
- Block, D. I., *The Book of Ezekiel 25-48* (Grand Rapids MI.: Eerdmans, 1998).
- Duguid, I. M., *Ezekiel and the Leaders of Israel* (VTSup. 56; E. J. Brill: Leiden, 1994).
- _____, “Putting Priests in their Place: Ezekiel's Contribution to the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Priesthood”, S. L. Cook and C. L. Patton (eds.), *Ezekiel's Hierarchical World Wrestling with a Tiered Reality*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Atlanta, 2004), 43-59.
- Duke, R. K., “Punishment or Restoration? Another Look at the Levites of Ezekiel 44. 6-16”,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0 (1988), 61-81.
- Fechter, F., “Priesthood in Exile according to the Book of Ezekiel”, *Ezekiel's Hierarchical World*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Atlanta, 2004), 27-41.
- Hanson, P. D., “Israelite Religion in the Early Postexilic Period”, P. D. Miller et al. (ed.), *Ancient Israelite Religion: essays in honor of F. M. Cross* (Philadelphia: Fortress, 1987), 485-508.
- Haran, M., “The law-Code of Ezekiel 40-48 and its relation to the Priestly school”, *Hebrew Union College Annual* 50 (1979), 61-67.
- _____, *Temples and Temple Service in Ancient Israel* (Winona Lake: Eisenbrauns, 1985).
- Herbert, D. *The Mishnah: translated from Hebrew, with introduction and brief explanatory notes* (Peabody, Mass: Hendrickson Publishers, 2011).
- Jenson, P. P., *Graded Holines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2).
- Kristiva J. and Roudiez L. S. (eds.), *Desire in Language: A Semiotic Approach to Literature and Ar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 Levine, B. A., *Leviticus*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1989).
- Lyons, M. A., *From Law to Prophecy: Ezekiel's Use of the Holiness Code* (New York: T&T Clark, 2009).
- Milgrom, J., *Numbers*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1990).
- _____, *Ezekiel's hope: a commentary on Ezekiel 38-48* (Eugene, Or.: Cascade Books, c2012).
- Rehm, M. D., “Levites and Priests”,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4, 297-310.
- Sarna, N. M., *Exodus*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 Schwartz, B. J., "A Priest out of Place: Reconsidering Ezekiel's Role in the History of the Israelite Priesthood", *Ezekiel's Hierarchical World*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Atlanta, 2004), 61-71.
- Tigay, J. H., *Deuteronom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 Tuell, S. S., *The Law of the Temple in Ezekiel 40-48* (HSM 49; Atlanta: Scholars Press, 1992).
- Tull, P., "Intertextuality and the Hebrew Scriptures", *Currents in Research: Biblical Studies* 8 (2000), 59-90.
- Wellhausen, J.,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Cleveland: The World Publishing Co, 1961).
- Zimmerli, W., *Ezekiel 2*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1979-83).

검색어

에스겔
 사독 제사장법
 거룩함의 등급
 본문 상호간 해석 방법
 목적과 기능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Zadokite Law (Ezek 44:17-31)

Sung Min Hong

Lecturer at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h.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Zadokite law (Ezek 44:17-31) through the intertextual approach. The Zadokite law is a reform plan that calls for a thorough self-criticism and an internal change from the past that has failed to build a new society. Since Wellhausen suggested the Zadokite's exclusivity and the demotion of the Levites in Ezekiel 44, many scholars follow his suggestion, and so the Zadokite's law is lightly dealt with as later redactional layers. Also, regarding the phenomena that occur when the Zadokite law is compared to the Mosaic Torah, M. Haran evaluates Ezekiel's code can be considered P's byproduct of the lower class or a small-scale transcript of P.

This regulations, however, deal in depth with the conduct and responsibilities of the Zadokite priests, and request special holiness grade of them in regard to their duties. Ezekiel 44:17-18 changes the subject of hearing from the people to the Zadokites,

and shows the shocking use of the terms for the priest's clothing. Besides, Ezekiel has no interest in the glory and beauty of priests, but he only emphasizes the glory of Yahweh. The priestly hair ordinance (vs. 20) is no longer in the mourning context, but in a general context that requires their normal, neat and flawless lives. The marriage regulation (vs. 22) takes the high priest's (Lev 21:13-15) and applies it to the Zadokite priests. Ezekiel has a stricter stance than the Mosaic Torah does. In the judicial role (vs. 24a), the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priests are reinforced. Regarding the priestly responsibility toward the dead (vs. 25-27; cf. Num 19), it was newly enacted and applied in a new situation, and so after their contact with the corpse the Zadokites are not allowed to serve as priests and are asked to offer the purification offering. This text notes that genuine reform is not a distinction and differentiation of external grades, but a substantial change in the clergy, the so-called social leader, who are in charge of the worship.

Keywords

Ezekiel
the Zadokite law
holiness grade
intertextuality
purpose and function

- 투고일: 2020년 4월 10일
- 심사일: 2020년 5월 1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4일